

# 16세기 프랑스의 제노포비아

## - 에티엔 돌레와 리옹의 산업을 중심으로 -\*

박 효 근\*\*

- I. 서론
- II. 16세기 프랑스 반이탈리아 정서의 지적 배경
- III. 16세기 프랑스 반이탈리아 정서의 경제적 배경
- IV. 에티엔 돌레와 내셔널리즘의 출현
- V. 결론

### • 국문초록

외국인 배제와 혐오를 특징으로 하는 제노포비아는 주로 20세기에 발현된 현상이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그들’을 배척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공고화하는 작업은 오랜 역사적 연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16세기 프랑스에서 발생한 반 이탈리아 정서를 분석함으로써 제노포비아 현상을 역사적 차원에서 조망해보려는 목적 아래 작성되었다. 16세기 프랑스에서 반 이탈리아 정서는 먼저 지적 차원에서 발생했고 이후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확산되었다. 리옹에서 인쇄업에 종사했던 휴머니스트 에티엔 돌레는 16세기 프랑스의 제노포비아가 지닌 두

---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1022523)

\*\*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

차원을 종합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이다. 돌레의 저술과 출판물 분석을 통해 제노포비아가 16세기 프랑스에서 초기적 형태의 내셔널리즘이 발생하는 동기로 작용했음을 고찰하였다.

• **주제어**

제노포비아, 내셔널리즘, 프랑스 휴머니즘, 리옹, 에티엔 돌레

## I. 서론

우리는 지금 터닝 포인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문명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이 국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sup>1)</sup>

그들의 탐욕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있는데 이는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의 본질 깊은 곳을 파먹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 공공에 대한 헌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도시의 은행을 장악하고 고리대금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방법은 프랑스 전체를 집어삼키고 무너뜨리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sup>2)</sup>

누군가가 프랑스를 위협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통과 공존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인 그들은 프랑스에 스며들어와 프랑스의 본질과 정통성을 파괴하고 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프랑스 전체를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 서두에 제시한 두 편의 인용문은 프랑스에 살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를 천명한다. 그렇다면 두 인용문에서 지목하는 경계의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흥미롭게도, 유사한 사고방식과 감정을 드러내는 두 인용문은 400년 이상의 간극을 두고 작성된 것이다. 첫 번째 인용문은 2008년,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 대표인 마린 르펜이 무슬림 집단을 겨냥해 한 발언이며,

1) Amnesty International, *Choice and Prejudice: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in Europe*,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2012, p. 17.

2) I. Gentillet, *La reponce de Maitre Jean Bodin, advocat en la Cour, au paradix de Monsieur de Malesroit touchant l'enrichissement de toute choses et le moyen d'y remedier* [1568], Lionello Sozzi, *Rome n'est plus Rome. La poléique antiitalienne et autres essais sur la Renaissance suivis de "La dignité de l'homme"*, Paris: Classiques Garnier, 2002, p. 23에서 재인용.

두 번째 인용문은 1568년, 프랑스의 사상가 이노상 장티에(Innocent Gentillet, 1535-1588)가 이탈리아인들을 공격하며 저술한 글의 일부이다. 시대도 다르고 겨냥한 집단도 다르지만, 두 명의 프랑스인들은 모두 프랑스 땅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을 위협한 ‘타자’로 배제하고, 프랑스의 본래 정체성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00년의 간극을 넘나들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노포비아(xenophobia)’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는 왜 어떤 배경 속에서 등장하고 강화되는가?

일반적으로 제노포비아란 자신의 문화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존재에 대해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표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제노포비아는 레이시즘(racism)과 일정정도 맥락을 같이 하나, 인종적 우월성에 기반을 둔 레이시즘보다 ‘우리와 다른 존재들’을 배제하는 타자성에 바탕을 둔 제노포비아는 현대 사회에서 좀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sup>3)</sup> 따라서 최근 국내외의 정치학계와 지역학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연구 성과들은 비교적 20세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제노포비아가 발생한 사회경제적, 법제도적 원인을 분석하는 경향이 강했다.<sup>4)</sup>

그러나 필자는 현대 사회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제노포비아의 발생과 확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현상을 역사적 차원에서 조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필자가 주목한 시기는 봉건왕국에서 주권국가로 국가공동체의 성격이 변

3) 김세균 외 공저, 『유럽의 제노포비아 : 세계화시대의 인종갈등』, 문화과학사, 2006, 17~18쪽.

4) 제노포비아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로는 각주 3번에 제시한 김세균의 저작이 대표적이며, 사회학적 연구로는 김현숙·김희재 공저, 『이민의 사회학』, 박영사, 2014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역사학계에서도 이주와 이민에 대한 문제는 광범위하게 논의의 중이며, 최근 결성되어 확고한 연구 성과를 산출해내고 있는 이주사학회(홈페이지 [www.homomigrans.com](http://www.homomigrans.com))의 공헌이 크다. 국내 역사학계에서 프랑스의 이민문제, 문화적 갈등과 제노포비아 문제를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한 연구서로 박단, 『프랑스 공화국과 이방인들』, 서강대출판부, 2013을 꼽을 수 있다.

동하던 16세기 근대 유럽, 그중에서도 프랑스의 사례였다. 16세기 프랑스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중앙정부가 형성되며 왕권이 강화되었고, 백년전쟁과 프랑스-이탈리아 전쟁 등을 통한 외부와의 갈등으로 ‘우리’와 ‘남들’을 가르는 구분선이 형성될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공동체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포섭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제노포비아가 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필자가 16세기 프랑스 휴머니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구체화되었다. 필자는 대표적인 프랑스 휴머니스트인 기욤 뷔데(Guillaume Budé, 1467~1540)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뷔데를 비롯한 16세기 프랑스 휴머니스트들이 이탈리아 휴머니스트에 대해 복합적 양가감정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였다.<sup>5)</sup> 프랑스의 휴머니스트들은 파리 신학대학의 고답적인 스콜라주의를 거부하고 이탈리아에서 발전한 휴머니즘을 대안으로 받아들이며 16세기 프랑스 학계를 풍미할 새로운 학문적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프랑스 휴머니스트들은 휴머니즘의 근간이 되는 고대 로마 고전에서 자신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골 족에 대한 비하를 발견하고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으며, 이탈리아가 세속적이고 비도덕적인 풍토에 물들어 있음을 비난하기도 했다.<sup>6)</sup>

16세기 전반기 프랑스 휴머니스트들 사이에서 종종 발견되던 지적, 문화적 반이탈리아주의는 16세기 중후반부에 이르면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차원의 반이탈리아주의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탈리아 상권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었던 프랑스 남서부 지방에서 시작되어 점차 정치적 중심지인 파리로 전파되었고, 사회경제적 파장과 정치

5) 박효근, 「헬레니즘에서 크리스티아니즘으로: 기욤 뷔데와 그의 시대」, 『서양중세사연구』 36, 2015, 207~237쪽.

6) 이탈리아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한 프랑스 휴머니스트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Lionello Sozzi, “La polémique anti-italienne en France au XVI siècle”, *Atti della accademia scienze di Torino* 106, 1972.

적 파장이 맞물리면서 반 이탈리아 민중폭동이 벌어지거나 이탈리아 출신 궁정인에 대한 적대감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차원으로 확산되었다.<sup>7)</sup> 결국 16세기 프랑스의 반 이탈리아 정서는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으로 변주되면서 무엇이 진정한 ‘프랑스’인가, 또는 ‘프랑스’라는 단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단초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16세기 프랑스의 반 이탈리아 정서와 프랑스 국가정체성 사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사는 그다지 축적된 바 없다. 우선 좁은 차원에서 보자면, 국내 학계에서 프랑스의 반 이탈리아 정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sup>8)</sup> 반면, 프랑스의 반 이탈리아 정서에 대한 국외 연구의 동향은 상대적으로 충실한 편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문화적 교류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노락(Pierre de Nolhac)과 피코(Emile Picot)를 거쳐 시모네(Franco Simone)에 이르기까지 16세기 프랑스의 반 이탈리아 정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었다.<sup>9)</sup> 최근 들어 해당 주제를 다룬 대표적 연구로 가스콩,<sup>10)</sup> 소찌,<sup>11)</sup> 발사모,<sup>12)</sup> 헬러(Henry Heller)의 연구 등을 들 수 있

7) 프랑스 내 이탈리아 상권의 확장과 이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Richad Gascon, *Grand commerce et vie urbaine au XVIe siècle: Lyon et ses marchands*, 2 vols, Mouton, 1971.

8) 16세기 불어에 이탈리아어가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한 윤광흥의 연구나 발자크의 음악론 속에 드러난 이탈리아 취향에 대한 김은년의 연구 등 일부 불문학계에서 해당 주제를 다루기는 했지만, 이탈리아주의에 대한 반감이나 그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주로 프랑스에 미친 이탈리아 문화의 특성을 검토하는 데 그쳤다. 윤광흥, 「L'ITALIANISME DANS LA LANGUE FRANCAISE AU XVIe SIECLE」, 『語文 叢』 17, 1998, 149~171쪽; 김은년, 「발자크의 음악론」, 『比較文學』 33, 2004, 59~88쪽.

9) Pierre de Nolhac, “Le roi Henri III et l’influence italienne en France”, *Giornale storico della Letteratura italiana* XVII, 1891, pp. 446~449; Emile Picot, “Les Italiens en France au XVIe siecle”, *Bulletin italien* I, 1901, pp. 92~137; Franco Simone, *Il Rinascimento francese*, Società Editrice Internazionale, 1961.

10) Richad Gascon, op.cit.

11) Lionello Sozzi, “La polémique anti-italienne en France au XVI siècle”, 1972, pp. 99~190.

다.<sup>13)</sup> 그러나 해당 연구자들은 프랑스의 반 이탈리아 정서를 문화적 차원, 사회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으로 각각 분화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반 이탈리아 정서가 결국 프랑스인의 자기 정체성 확보와 내적 통합을 위해 이탈리아를 타자화한 결과라는 종합적 접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6세기 프랑스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반(反) 이탈리아 정서를 통해 제노포비아(xenophobia) 현상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고, 프랑스의 반 이탈리아주의가 발생한 지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이탈리아에 대한 타자화 현상이 근대 초 프랑스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프랑스 내에서 반 이탈리아 정서가 가장 먼저 구체화된 16세기 프랑스 휴머니스트들의 저작을 통해 16세기 제노포비아 현상의 지적 배경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이탈리아인에 대한 반감이 경제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리옹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4장에서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프랑스적 정체성 구현의 매개로 작동하고 이것이 ‘프랑스어 서적’이라는 하나의 상품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리옹에서 활동한 휴머니스트이자 인쇄업자 에티엔 돌레(Étienne Dolet, 1509-1546)의 경우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를 통해 타자의 배제와 혐오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작업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그만큼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

12) Jean Balsamo, *Les Rencontre des Muses: Italianisme et anti-italianisme dans les Lettres Françaises de la fin du XVI siècle*, Edition Slatkine, 1992.

13) Henry Heller, *Anti Italianism in Sixteenth-Century France*, Univ. of Toronto Press, 2003.

## II. 16세기 프랑스 반이탈리아 정서의 지적 배경

프랑스 문화전통에서 이탈리아주의(L'italianisme)이라는 용어는 전반적으로 퇴폐(décadence)와 동의어로 쓰인다. 이탈리아주의란 궁정에서 유행하던 우아하고 극적이지만 형식에 치우친 문화양식으로, ‘이탈리아 풍’의 문화가 프랑스에 유행하면서 프랑스 문화가 그다지 건강하지 못하게 변형되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sup>14)</sup>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주의란 과장되고 음울하며 쇠락하는 문화적 취향으로 프랑스적 강건함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정적인 어감을 내포한 단어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문화는 동경과 희구의 대상이었다. 1494년 샤를 8세부터 시작되어 1559년 앙리 2세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반복된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의 갈등은 의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이탈리아의 문화자원과 인적 자원이 프랑스로 격렬히 유입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이탈리아에서 집중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휴머니즘적 학문방법론이 적극적으로 프랑스에 전파되었고,<sup>15)</sup> 이탈리아 출신 학자들이 프랑스에 정착하기도 했다.<sup>16)</sup>

14) Jean Balsamo, op. cit., pp. 10~12.

15) 이탈리아와의 접촉이 프랑스 휴머니즘의 토대가 되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시모네의 경우 이미 14세기부터 프랑스 학자들 사이에서도 휴머니즘과 유사한 학문방법론이 존재했기에, 프랑스 휴머니즘은 상당히 자생적인 근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모네의 주장에 대해서는 Franco Simone, “Une entreprise oubliée des humanistes français. De la prise de conscience historique du renouveau culturel à la naissance de la première histoire littéraire”, *Humanism in France in the end of the Middle Ages and in the early Renaissanc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70, pp. 106~131.

16) 당시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이탈리아 출신 저명 학자로 콜레쥬 드 프랑스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던 지롤라모 알레안드로(Girolamo Aleandro)와 파올로 카노사(Paolo Canossa), 부르주 대학의 법학자 안드레아 알키아티(Andrea Alciati)가 새로운 법학교수법을 전파했고, 아쟁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스카에리저(Julius Caesar Scaliger)와 마테오 반델로(Matteo Bandello) 등을 들 수 있다. Henry Heller, op.

프랑스에 정착한 이탈리아 출신 휴머니스트의 영향력은 상당했으나, 이들에 대한 동경과 찬양은 동시에 라이벌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이탈리아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고대 로마의 적통 후계자로 여겼고,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더 완벽한 방식으로 고전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통성과 우월성을 지녔다고 생각했다. 또한 프랑스인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골족(켈트족)은 이탈리아 휴머니스트의 글 속에서 야만인의 상징처럼 지칭되곤 했다. 동시대 프랑스 최고의 휴머니스트라 불리던 기욤 뷔데(Guillaume Budé)는 이런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년 동안이나 골 족의 행동은 폄하되어 왔고, 골 족의 문화를 통해 그다지 배울 것이 없다는 시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현재 마구잡이로 전파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프랑스를 다스리던 주군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프랑스의 그 누구도 명예롭고 격조 있는 솜씨로 골 족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습니니다. 왕 주위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이들도 이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것이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영광스러워야 할 프랑스 왕국과 왕들의 문장에 대해 지금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전쟁의 승리를 찬양할 문인들이 없는 형편입니다. 저는 감히 이런 상황이 용서받지 못할 대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바입니다.<sup>17)</sup>

이탈리아 휴머니스트들의 오만에 맞서, 프랑스 지식인들은 프랑스인의 지적 능력이 이탈리아인들에 비해 모자람이 없고, 오히려 월등할 수 있다고 반박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가 로마제국 멸망 이래 문화적 쇠퇴기에 들어선 것에 비해, 프랑스는 중세 내내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으므로 고

---

cit., p. 34.

17) Guillaume Budé, *La Philologie*, texte original trad. par Maurice Lebel, Éd. de l'Université de Sherbrooke, 1989, p. 90.

대와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으며,<sup>18)</sup> 고대의 전통은 프랑스를 통해 중세에도 발전과 변형을 계속했기에 오히려 16세기 프랑스인들이 이탈리아보다 한층 더 고대 학문의 정수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sup>19)</sup>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에 대한 지적 라이벌 의식은 프랑스 전통의 우수성과 위대함을 강조하는 문화적 내셔널리즘으로 분출되기에 이른다.

16세기 중후반부터 프랑스 지식인들은 꾸준히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다양한 분야에서 표출하려 노력했다. 장 르메르(Jean Lemaire de Belge)는 프랑스 속어의 우수성과 프랑스 속어문학의 중세적 전통을 찬양하며 투스카나어(이탈리아어)보다 프랑스어가 더 세련된 언어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실과 감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언어라 주장했으며,<sup>20)</sup> 샤를 뒤플랭(Charles Dumoulin)은 고대 로마인들보다 골족이나 프랑크족의 문화적 전통이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sup>21)</sup>

프랑스 문화 전통의 우수성을 강조한 16세기의 대표적 저작으로 프랑수아 오토망(François Hotman)의 『프랑코갈리아 Francogallia』(1573)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코갈리아』는 모나르코마크 계열의 저작으로 군주제의 폭정을 비판하고 입헌주의의 장점을 강조하는 저작이라 알려져

18) 이탈리아의 도덕적 타락이 그들의 지적 우수성을 흔탁케 만들었고, 프랑스인이 오히려 더 지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대표적 학자로 앙리 에스티엔(Henri Estienne)을 들 수 있다. 헤로도토스가 서술한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이야기들이 동시대에도 여전히 발견된다는 논지를 펴면서 동시대 인간군상의 어리석음을 표명한 그의 대표작 『헤로도토스를 위한 변명 Apologie pour Hérodote』에서 그는 주로 이탈리아 여행 당시 만난 이탈리아인들의 불경함과 난잡함, 방만함을 지적하며 은근히 프랑스를 더 나은 지적 대안으로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에스티엔의 반 이탈리아 정서에 대해서는 Lionello Sozzi, *Rome n'est plus Rome*, 2002, pp. 111~126.

19) '이탈리아 학자들은 공허한 외적 형식만을 추구하지만 프랑스인들은 고대의 유산 그 자체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자부심은 1520년대 키케로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던 논점이기도 하다. M.M. La Garanderie, *Christianisme et lettres profanes: Essai sur l'humanisme français(1515-1535) et sur la pensée de G.Budé*, 2 éd., Honoré Champion, 1995, pp. 98~101.

20) Jean Balsamo, *Les Rencontre des Muses*, pp. 38~42.

21) Jean-Louis Thireau, *Charles du Moulin: 1500-1566*, Droz, 1980, pp. 92~127.

있는데, 오토망이 폭정의 대명사로 소환한 국가는 바로 고대 로마제국이었으며, 프랑시아말로 입헌주의적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따라서 [로마 정복 이전] 골족 공동체들은 한 사람의 지배 아래 종속된 체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민중이 직접 다스리는 공화정 형태를 취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골족 공동체는 귀족 중 대표를 뽑아 다스리는 국가 형태를 취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민으로 존재했다. 왕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는 지역도 있었지만 골족 전체의 의견은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연방회의를 통해 수립되었다. …… 골 지역은 십년이나 지속된 전쟁 끝에 카이사르에게 복속되어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전투력이 강했던 골족이 성정의 표현을 빌리자면 ‘위대한 야수’라 불리는 제국의 일부가 된 것은 큰 불행이었다. 이후 로마가 무너지기까지 골족과의 전투만큼 로마인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든 것은 없었다. …… 로마의 정복 이후 갈리아 지역은 속주가 되어 그들의 법과 관습이 사라졌고, 로마의 지배 아래 영원한 노예 상태가 시작되었다.<sup>22)</sup>

오토망은 이처럼 로마제국의 억압과 자유로운 골족 전통을 비교하면서 중앙집권적인 로마법은 독재와 폭정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골족이나 프랑크족의 관습법에 근거한 입헌주의적 정부야말로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라 여겼다.<sup>23)</sup> 이렇듯 프랑스 휴머니스트들은 언어, 문학, 역

22) Francis Hotoman, *Franco-Gallia Or, An Account of the Ancient Free State of France, and Most Other Parts of Europe, Before the Loss of Their Liberties*, written originally in Latin In the Year 1574 and Translated into English by the Author of the Account of Denmark, 2nd edition, trad. by Robert Molesworth, London, 1711, pp. 1~2, pp. 14~16.

23) 오토망의 입헌주의 정부 옹호는 곧 프로테스탄트적 감수성의 발현이기도 하다. 칼뱅파였던 오토망은 칼뱅파의 공화주의적 성격을 부담스러워하는 프랑스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를 입헌주의적 언어로 해석하며 이는 오히려 프랑스의 오랜 전통이라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홍기원, 「최선의 국가형태 -프랑스와 오토만(1524-1590)의 혼합정체론의 신학적 기초」, 『법철학연구』 11-1, 2008, 1~38쪽.

사, 법, 제도 등 모든 측면에서 프랑스적 전통이 합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자국문화에 대한 프랑스 휴머니스트들의 열정은 최종적으로 이탈리아 인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정서적 반감으로까지 발전하였다. 16세기 프랑스 휴머니스트의 저작 속에서 이탈리아 문화의 형식주의와 공허함을 공격하고, 그 원인을 욕심 많고 비도덕적인 이탈리아인의 기질 때문이라 지적하는 글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탈리아는 무신앙으로 가득 찬 곳이다.  
사방에서 불같은 죄악이 끓어 넘친다.  
불안하고 근심스러우며  
허영이 가득한 곳.  
올바르지 못한 것들은 모두  
이곳에서 태어난 것만 같다.  
마치 괴물만이 군주가 되는  
저 공포의 땅 아프리카처럼.<sup>24)</sup>

그렇다면 프랑스인들이 보기에 왜 이탈리아인들은 비도덕적이고 교만하며 종교적으로도 독실하지 못한 종족이 되었는가? 일부 휴머니스트들은 그 원인으로 상업과 돈에 대한 이탈리아인들의 집착을 지적했고,<sup>25)</sup> 다른 휴머니스트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과 타락이

---

24) A. de Pont-Aymery, "L'academie ou institution de la Noblesse Française", *Les Oeuvres d'Alexandre de Pont-Aymery*, Paris, 1559, ff. 6v-7, Lionello Sozzi, *Rome n'est plus Rome*, p. 14에서 재인용.

25) 상업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상업에 대한 태도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 이탈리아는 중세 내내 상업이 발달하여 귀족들도 자유롭게 상업에 투신한 반면, 프랑스 귀족들은 상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었고 이를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기도 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수입되는 물건은 향신료와 견직물 등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산 수입품들이 프랑스의 강건한 도덕적 순수함을 저해한다는 비난이 동반되기도 했다. Henry Heller, *op. cit.*, p. 36.

권모술수와 배신에 익숙한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sup>26)</sup> 특히 이탈리아인이 정치적으로 협잡과 음모에 적합한 기질을 지니고 있다는 비난은 마키아벨리의 저작이 프랑스에 소개되면서 한층 더 진지한 논쟁의 주제로 발전되기도 했다.<sup>27)</sup>

프랑스 휴머니스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킨 반 이탈리아 정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들이 이탈리아 문화에 대해 폄하하고 자국문화를 재평가하는 와중에 고전고대에 대한 동경과 존중이라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지적 세계관에 점차 균열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프랑스 휴머니스트들은 점차 고대 로마를 이탈리아와, 자신들을 켈트족과 동일시하면서 켈트 문화의 우수성과 위대함을 찬양하거나, 반대로 고대 로마의 법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또한 고대 문화에 대한 재평가는 프랑스에서 발전했던 중세 고딕 전통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고, 몇몇 경우 미미하나마 고대에서 중세, 그리고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가 점차 발전해갔다는 인식이 발견되기도 한다.<sup>28)</sup>

26) 이탈리아 정치 난맥상과 권모술수가 그들의 열등한 국민성의 소산이라는 정서는 카트린 드 메디치 시대 이탈리아인들이 프랑스 궁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으면서 한층 더 확대되었고, 생 바르텔르미 학살이 이들의 계략이라는 음모론이 퍼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카트린 드 메디치가 생 바르텔르미 학살의 원흉이라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Henri Estienne, *Discours merveilleux de la vie, actions et deportments de Catherine de Medici, Roynne-mere*, ed. by Nicole Cazauran, Droz, 1995.

27) 프랑스의 반 마키아벨리즘 경향에 대해서는 Innocent Gentillet, *Discours sur les moyens de bien gouverner et maintenir en bonne pais au royaume ou autre principaute contre Nicole Machiavel Florentine*, 1576, 이에 대한 현대 편집본은 Edward Rathé ed., Innocent Gentillet. *Anti-Machiavel. Édition de 1576, avec commentaires et notes*, Librairie Droz, 1968. 장티에의 반(反)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기본적 연구서로는 C. Edward Rathé, "Innocent Gentillet and the First 'ANTI-MACHIAVEL'", *Bibliothèque d'Humanisme et Renaissance* 27-1, 1965, pp. 186~225; Antonio D'Andrea,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text of Innocent Gentillet's Anti-Machiavel", *Renaissance Quarterly* 23-4, 1970, pp. 397~411 등을 참고할 것.

28) Henry Heller, op. cit., p. 37.

이처럼 프랑스 지식인들의 반 이탈리아 정서는 초반 학문적 경쟁심에서 시작되어, 점차 프랑스 문화전통에 대한 변호로 확산되었으며, 끝내는 르네상스 지적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 층위를 뒤흔들어놓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른다. 결국 프랑스의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고대문화를 자신들과 동일시할 수 있었던 이탈리아와는 달리 고전을 통해 타자와 자신을 구분하고 자국문화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이탈리아는 자국의 정체성과 구분되는 막강한 타자가 되어, 동경과 혐오, 반감과 공포를 투사할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되었다.

그렇다면 왜 타자의 대표로 이탈리아가 떠올랐을까?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상업 중심 도시국가로 변성했던 이탈리아와 중세 문화의 중심지였으면서도 국왕 중심 영토국가로 거듭나고 있던 프랑스 사이 정치적, 문화적 차이는 분명했었고, 프랑스-이탈리아 전쟁 이후 두 국가 사이의 갈등과 경계심이 커졌을 상황도 존재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프랑스 내부에 이주해 살고 있던 이탈리아인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교황청이 옮겨와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던 아비뇽과, 정기시(foire) 설치 후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했던 리옹의 경우 다수의 이탈리아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과의 갈등은 이탈리아인에 대한 반감과 혐오를 학문적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차원으로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3장에서는 반 이탈리아 정서가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었는지 그 구체적 전개 과정을 리옹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도록 하겠다.

### Ⅲ. 16세기 프랑스 반이탈리아 정서의 경제적 배경

프랑스 서남부 지방의 중심도시 리옹은 오랫동안 사부아 공국과 경계를 맞댄 국경도시로, 해외 문물과 사상이 프랑스에 유입되던 핵심 통로

중 하나였다.<sup>29)</sup> 1463년 루이 11세는 리옹의 지리적 이점을 인식하고 이곳에 정기시를 설치했는데, 이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정기시라는 매력적인 상품판매기회는 곧 대규모 자본을 끌어들이는 동기가 되었고, 15세기 후반부터 리옹은 대규모 금융자본을 운영하는 상사들이 직접 정착하거나 분점을 내기에 최적화된 상업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리옹의 정기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모든 새로운 경제활동에 가장 최적화된 집단은 다름 아닌 이탈리아인들이었다. 이탈리아인들의 리옹 정착은 14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16세기 중반에 이르면 거의 10,000명에 이르는 이탈리아인들이 리옹을 근거로 활동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sup>30)</sup> 리옹 거주 이탈리아인의 규모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그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옹에 거주하던 이탈리아 거상들의 막강한 영향력이다. 이탈리아 거상들은 리옹에서 견고하고 배타적인 엘리트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사실상 리옹의 재정적, 상업적 세계를 관리하는 핵심 주역들이었다.<sup>31)</sup>

리옹 거주 이탈리아 상인 엘리트들은 피렌체, 루카, 밀라노, 제노바 등 다양한 도시국가 출신이었는데, 그중 피렌체 상인의 수가 가장 많았다. 리옹이 국제적 무역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피렌체의 거상들은 그들의 막강한 자본을 운영할 새로운 거점으로 리옹을 선택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

29) Jaqueline Bocher, *Présence Italienne à Lyon à la Renaissance*, Lyon: LUGD, 2000, p. 5.

30) 리옹에 정착한 이탈리아인의 총 규모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헬러는 리옹의 인구가 60,000~70,000명 정도였던 16세기를 기준으로 10,000명 이상의 이탈리아인이 리옹에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부쉐는 그 당시 이탈리아인 이주자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했다고 보았다. 이탈리아인들의 경우 엘리트 상인들은 시민권을 따지 않았고, 상당수 존재했으리라 여겨지는 이탈리아 서민층의 경우 거주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의견차이로 보인다.

31) 부쉐에 따르면 1575년 리옹시가 거둔 세금 수입 중 28%를 이탈리아인이 납부했다고 한다. 따라서 거주인구와 무관하게 리옹 경제에서 이탈리아인의 영향력이 막강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Jaqueline Bocher, op. cit., p. 13.

로 1455년 메디치 가문의 핵심 대리인이던 프란체스코 사세티(Francesco Sassetti)가 리옹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리옹에 지점을 설립한 것을 들 수 있다.<sup>32)</sup> 피렌체 유력 가문의 리옹 정주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16세기에는 메디치 가문과 프랑스 왕실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리옹에는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에 의해 축출된 스트로치(Strozzi) 가문이 입성하여 프랑스의 이탈리아 진출을 후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거대상사들은 주로 이탈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유통했던 견직물과 향신료 등 사치품을 수입하여 큰 이득을 얻었다. 또한 이탈리아 유력 가문이 운영하던 상사들은 대부분 금융업에도 종사했기 때문에, 리옹에는 피렌체와 루카 등지에서 활동하던 금융업 종사자들이 상당수 자리 잡게 되었다. 피렌체의 살비아티(Salviati), 공디(Gondi), 마르텔리(Martelli), 카포니(Capponi) 가문을 비롯, 루카의 본비시(Bonvisi), 미카엘리-아르놀피니(Michaeli-molfini) 가문은 리옹에서 16세기 말까지 활동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금융 자본가들이었다.<sup>33)</sup>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반, 리옹의 상권과 자본을 손에 쥔 극소수의 이탈리아 최고위급 상인 엘리트들은 실질적으로 ‘리옹을 창조해낸 사람들’이라 불릴 만했다.<sup>34)</sup> 그들은 출신 도시별로 연맹(nations)을 조직해 자신들만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특히 피렌체 연맹은 자신들만의 행정조직과 법정을 따로 운영했으며, 독립된 교회와 수도원 조직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특권을 향유했다. 이렇듯 리옹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상인 엘리트 집단은 프랑스인들과 섞이거나 동화되지 않았으며, 동향의 이탈리아인들로 구성된 전 유럽적인 교역망을 자신들의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고 그들만의 별도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리옹의 이탈리아 상인공동체는 일종의 리옹 내부에서 이질적인 ‘섬’처럼 존

32) Ibid., p. 6.

33) Ibid., pp. 75~97.

34) 페르낭 부르델,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I-1: 세계의 시간 上』, 까치, 1997, 454쪽.

재했던 것이다.<sup>35)</sup>

리옹의 이탈리아 상인공동체는 이처럼 폐쇄적이었으나, 그들이 처음부터 혐오와 반감의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리옹에 정기시가 설립되고 대규모의 경제적 부흥이 일어났던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까지, 이탈리아 상인들의 적극적 투자와 막강한 자금력은 리옹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매개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샤를 8세 시절 파리 정계에서 리옹 정기시를 국부유출의 근원으로 여겨 폐쇄했을 때, 정기시를 지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바로 이탈리아 상인들이었다. 나아가 리옹의 이탈리아 상인들은 도시의 성벽을 보수하거나 자선기금을 제공하는 등 리옹 시 행정에 여러모로 큰 도움을 주는 존재였다.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되던 16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리옹의 이탈리아 상인들은 이질적이기는 했지만 ‘좋은 이웃’이라는 평판을 받는 편이었다.<sup>36)</sup>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리옹의 이탈리아 상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확산된 것일까? 우선 산업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리옹 토박이 상공업자들과 이탈리아 상인 사이의 불화가 리옹 내 반 이탈리아 감정의 첫 번째 도화선이라 할 수 있다. 리옹에 기반을 둔 견직물 산업과 인쇄업 등이 성장하면서 등장한 토착 상공업자들은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고가의 물건을 유통하는 이탈리아 거상들과 충돌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리옹의 경기가 좋을 때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이러한 갈등은 154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에 루카 출신 본비시 가문 등 몇몇 이탈리아 거상들이 이탈리아에서 생사를 수입하여 리옹에서 견직물을 직조하는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고, 동시에 모직물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던 명반

35) 1571년 리옹에 등록된 피렌체 연합(nation) 구성원은 42명, 밀라노는 36명, 루카와 제노바는 27명이었고, 이들이야말로 리옹 산업계의 핵심 중 핵심이었다. 소수의 구성원들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한 극소수의 상인이 연합의 부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피렌체의 경우 9명의 상인이 피렌체 연합 전체의 재산 중 3/4을 차지할 정도였다. Henry Heller, *op. cit.*, pp. 40~41.

36) 미야시타 시로 저, 오정환 역, 『책의 도시 리옹』, 한길사, 2004, 58~59쪽.

(alum)의 수입을 독점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등 리옹의 직물생산업 전반에 충격을 가했는데, 이는 이탈리아인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sup>37)</sup>

두 번째로 리옹 거주 이탈리아 상인들의 자본과 프랑스 왕실 사이의 강력한 연대가 불신과 거부감을 낳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당시 프랑스 왕실 재정은 이탈리아 자본에 깊게 의존하고 있었다. 1540년대 프랑스 왕실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카를 5세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원정 등 수 차례 대규모 군사작전을 진행했고, 이는 왕실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되었다. 프랑스 왕실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리옹의 면세특권을 줄이고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세 정책으로 인해 리옹의 경제적 활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은 리옹의 금융자본을 장악하고 있던 이탈리아 상인들에게 큰 이익이 되었다. 리옹의 이탈리아 금융가들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프랑수아 1세와 앙리 2세 시대에 걸쳐 프랑스 왕실에 이탈리아 전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주었고, 이에 따른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한 왕실은 이를 상환하는 대신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 이를 거둘 조세권을 이탈리아인들에게 넘겨주기도 했는데, 이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프랑스인들의 반감이 세금징수를 담당할 이탈리아인에게 쏟아지는 계기가 되었다.<sup>38)</sup>

37) Henry Heller, *op. cit.*, p. 43.

38) 이탈리아 상인들의 자금력은 막강한 수준이었으므로, 당시 경쟁하고 있던 프랑스 발루아 가문과 신성로마제국 합스부르크 가문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여 해당 자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경쟁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프랑수아 1세는 기존 8%의 금리보다 더 높은 12%의 금리를 이탈리아 상인들에게 제공했고, 스피니, 자코미니, 콩디 가문 등 이탈리아 금융업자들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Grand Parti라 불리던 이러한 이탈리아 상인들은 대부금을 상환하기 위해 왕실에 새로운 세금을 책정하고 자신들에게 조세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고, 이는 곧 프랑스 상공업자와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자신들이 부담한 세금이 이탈리아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국부의 유출이라 여긴 프랑스인들의 반발은 반 이탈리아 감정을 격화시키는 매개로 작용하게

마지막으로 16세기 후반기 가격혁명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 역시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신대륙에서 유입된 은이 증가하면서 은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의 가치가 상승하는 소위 가격혁명이 진행 중이었는데, 리옹의 대표적 이탈리아 상인인 본비시와 미카엘리가문 등은 프랑스 내에서 비용을 지불할 때는 은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금으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당시의 환율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리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이 중첩되어, 리옹의 프랑스인들은 점차 이탈리아인들이야말로 프랑스의 국부를 유출하는 원흉이라 비난하게 되었던 것이다.<sup>39)</sup>

이렇듯 16세기 초반 프랑스 휴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고조된 반 이탈리아 정서는 초기 이탈리아에 대한 경쟁의식과 자국 프랑스 문화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라는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차원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반 이탈리아 정서는 경제적 유통의 중심지였던 리옹 뿐 아니라 과거 교황청이 존재해 이탈리아와의 교류가 많았던 아비뇽에서도 발견되며, 추후 파리로도 유입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산일로에 있던 반 이탈리아 정서를 활용해 프랑스인들의 단결이나 통합을 강조하려는 시도는 없었을까? 4장에서는 이탈리아인의 타자화를 통해 형성된 프랑스 내셔널리즘의 초기적 형태를 추적하기 위해, 리옹의 인쇄업자이자 휴머니스트 에티엔 돌레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 IV. 에티엔 돌레와 내셔널리즘의 출현

에티엔 돌레(Etienne Dolet, 1509~1546)는 프랑스 휴머니스트들 중 특별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전문적 교육을

된다. 해당 내용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은 Ibid., pp. 42~55.

39) Ibid., pp. 64-66.

받은 휴머니스트이면서도 인쇄업에 뛰어들어 다양한 서적을 출판했으며, 프랑수아 1세에게 각별한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화형으로 생애를 마감한 그의 독특한 이력은 학자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 때문에 돌레는 오랫동안 ‘사상의 자유를 위해 싸운 르네상스의 순교자’로 추앙되어 왔는데, 이런 경향은 돌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19세기 후반부터 193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었다.<sup>40)</sup>

그러나 최근 돌레의 연구자들은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극복하고 돌레의 생애와 작품, 그리고 인쇄업 전반을 탐구하여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의 복합적이고 역설적인 측면을 성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sup>41)</sup> 특히 그가 저술하거나 출판한 책들을 통해 리옹을 중심으로 펼쳐진 르네상스의 출판문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돌레의 경우 최상급의 교육을 받은 휴머니스트였고, 출판이라는 분야에 직접 뛰어들어 책을 제작했기 때문에 리옹 출판계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적절한 사례라 하겠다.<sup>42)</sup>

이러한 기존 연구성과들을 기반으로, 필자는 프랑스에서 구현된 반 이탈리아 정서의 지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돌레의 저작과 출판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프랑스의 반 이탈리아 정서는 16세기 초반 프랑스 휴머니스트들 사이에서 발현되었지만, 16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좀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프랑스의 대표적 휴

40) 해당 계열의 가장 고전적인 저술로 R. C. Christie, *Etienne Dolet, the Martyr of the Renaissance*, Macmillan and co., 1899, Forgotten Books, 2015를 들 수 있다.

41) 돌레의 연구사적 변천에 대해서는 Michèle Clement ed., *Etienne Dolet: 1509-2009*, Droz, 2012, pp. 7~17 참고.

42) 돌레가 출판한 서적의 목록은 대표적인 돌레 연구가 롱젠(Claude Longeon)이 시작하여 모리스(Gérard Morisse)의 보충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완결된 상태이다. Gérard Morisse, “Compléments à la bibliographie d’Etienne Dolet: ouvrages parus à Lyon de son vivant”, Michèle Clement éd., *Etienne Dolet: 1509-2009*, Droz, 2012, pp. 439~475.

머니스트 중 하나로, 리옹에서 인쇄업에 종사하며 다수의 책을 출판한 돌레의 경우는 반 이탈리아 정서의 두 차원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돌레의 출판 작업은 반 이탈리아 정서의 직설적인 구현이라기보다 이탈리아 등 타자와 프랑스를 차별화할 수 있는 국가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일종의 초기적 형태의 내셔널리즘이라 해석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1. 휴머니스트 돌레와 프랑스 옹호

오를레앙 출신인 돌레는 파리와 파두아에서 휴머니즘 교육을 받았고, 키케로에 깊이 심취했으며 문재가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리모주의 주교 장 드 랑작(Jean de Langeac)의 비서로 활동하며 그의 후원 아래 툴르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할 때까지 돌레는 평범한 휴머니스트의 경력을 따라가는 듯했으나, 대학 내 동향단(nations)을 억압하는 툴르즈 고등법원의 칙령에 반대하는 글을 작성했다가 이에 따른 논란에 휘말려 학교에서 추방당하며 인생의 경로가 크게 뒤틀리게 된다.<sup>43)</sup>

개인적 고난을 딛고 돌레가 정착한 곳은 다름 아닌 리옹이었다. 1534년 돌레는 그리피우스(Sebastianus Gryphius)의 인쇄소에서 교정자로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했는데, 이후 1538년 프랑수아 1세로부터 10년간 그가 집필, 번역, 편집한 책을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특권을 하사받고 자신의 이름을 단 출판사를 차리는 등 리옹 인쇄업계의 신성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동시에 돌레는 25권의 저서를 집필하는 등 인쇄업자로 변신한 뒤에도 활발한 저술활동을 계속했다.

43) 이 시절부터 돌레는 프랑스의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고 외국의 학문을 무조건 존중하는 실태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Henry Heller, op. cit., pp. 37~39. 툴르즈에서 돌레가 벌인 논쟁에 대해서는 Jacques Alary, *L'imprimerie au seizième siècle: Etienne Dolet et ses luttes avec la Sorbonne*, Slatkine Reprints, 2013, pp. 11~12.

돌레의 저술 활동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은 프랑스어의 수준과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저술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잘하는 방법 *La manière de bien traduire d'une langue en autre, D'aduantage de la punctuation de la langue Francoyse, plus des accents d'ycelle*』(1540년 발행, 이하 『방법』으로 약칭)을 꼽을 수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돌레는 『방법』은 프랑스어에 대한 종합적 연구서 『프랑스 연설가』 연작 중 일부가 될 것이라 밝혔는데, 이처럼 돌레는 프랑스어 문법과 철자법에서부터 번역과 수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어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시리즈물을 기획했으나 미처 다 완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4)</sup> 결과적으로 돌레의 『방법』은 단순한 번역기술에 대한 책이 아니라 조국 프랑스의 영광을 드높이는 방편으로 프랑스어를 예찬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반영된 저술이다. 이런 관점은 『방법』의 서문에도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한때 라틴어만 사용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라틴어를 주로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이 책의 출간은 의미가 깊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을 하고 싶다는 내 열망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고민해왔다. 그 결과 우리의 언어를 예찬하는 작업이야말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어를, 로마인들은 라틴어를 위해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또 다른 이유는 언어를 예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이탈리아어를 위해서는 아레탱, 페트라르카, 벵보 등이 활동하고 있고, 프랑스어를 위해서는 뷔데와 파브리 등이 있다. 이러한 대단한 사람들이 자국어를 정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우리 언어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같은 위상을 가지려면 한 명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뛰어난 학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조금씩 모여야 가능하다. 그래야만 그리스어

44) 김중현, 「돌레의 번역론과 프랑스어의 함양」, 『프랑스 예술문화연구』 39, 2012, 420쪽.

나 라틴어와 같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내 노력을 보태고자 한다. 우리말을 개혁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이 작업은 외국인들이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야만인이라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sup>45)</sup>

‘우리나라의 영광을 드높이는 작업’을 위해 돌레가 손을 댄 또 다른 분야는 동시대의 정치현실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프랑수아 1세의 행적 Les gestes de Francoys de Valois roy de France』(1540년 초판, 1543년 재판, 이하 『행적』으로 약칭)은 동시대 현실에 대한 돌레의 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은 프랑수아 1세와 그의 시대에 대한 역사서가 아니라, 당시에 벌어진 정치적 사건 중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을 기술한 일종의 사건과 일화 모음집에 해당한다. 『행적』에 대해 연구했던 롱겐(Claude Longeon)은 돌레가 중세 말부터 유행했던 『일화집 La mer des histoires』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동시대를 배경으로 스스로 제작해보려 했다고 해석했다.<sup>46)</sup>

그런데 최근 해당 저작에 대해 연구한 아스티에(Sophie Astier)는 『행적』의 1540년판과 1543년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편집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적』의 1540년판에서 돌레는 당시 프랑스에서 일어난 주요 정치적, 외교적 사건들을 단순히 수집해 나열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일화집』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적』 1543년판의 경우 몇몇 사건에 관해 돌레 나름의 논평과 해석이 첨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대부분 프랑수아 1세의 선택과 행동을 옹호하고 프랑스 최대의 라이벌이었던 신성로마제국의 카를 5세를 비판하는 논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아스티에는 돌레의 1543년판

45) Etienne Dolet, *La manière de bien traduire d'une langue en autre, D'aduantage de la punctuation de la langue Francoyse, plus des accents d'ycelle*, Lyon: Chez Dolet, 1540, pp. 5~7.

46) Claude Longeon, “Etienne Dolet historien”, *France et Italie dans la culture européenne, Moyen Age et Renaissance*, Slatkine, 1980, pp. 248~249.

『행적』은 단순한 사건모음집이 아니라 스스로 “프랑수아 1세의 사료 편찬관을 자처하는 태도이며, 1530년대부터 꾸준히 지속된 프랑수아 1세와 카를 5세 사이의 갈등을 놓고 유럽 외교계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정당화 논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물이라 평가했다.<sup>47)</sup>

이처럼 돌레는 자신의 저술을 통해 16세기 프랑스 휴머니스트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던 프랑스적 전통의 옹호와 예찬이라는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였고, 이탈리아 도시국가나 합스부르크 제국과는 구분되는 프랑스 왕국을 다양한 차원에서 정당화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초기적 차원의 내셔널리즘의 반영이라 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돌레의 ‘내셔널리즘’은 단지 지적인 차원으로만 발현되지 않고 그의 인쇄업 전반을 통해 하나의 ‘상품’으로 확장되기에 이른다.

## 2. 출판업자 돌레와 내셔널리즘의 상품성

출판업자로서 돌레의 활동은 국내 학계에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돌레가 출판한 책 목록을 집대성한 모리스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의 출판 경력 전체를 조망해보았다.

	1					2					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	2	5	4	6	2	6	15	24	45	11	4	1	126
1)	1	2	2	2	1		4	6	2	1	3	1		25
2)					4					1	2			7
3)			3	2	1	1	2	5						14
4)						1		4	22	43	6	3	1	80
5)								(14)	(24)	(45)	(11)	(4)	(1)	(99)

. #0

47) Sophie Astier, “Les gestes de François de Valois, roi de France”, Michèle Clement ed., *Etienne Dolet: 1509-2009*, Droz, 2012, p. 256.

모리스에 따르면, 돌레는 리옹의 출판계에 투신한 1534년부터 그가 사망하기 1년 전인 1545년까지 12년간 총 126권의 책 출간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했다.<sup>48)</sup> 이를 크게 셋으로 나누면 출판종사자로서 돌레의 경력을 작가와 편집자로 활동한 1기(1535-1538), 프랑수아 1세로부터 출판에 대한 특허장을 받고 자신의 인쇄소를 차려 본격적으로 활동한 2기(1538-542),<sup>49)</sup> 그리고 체포와 투옥이 반복되는 와중에서도 마지막 열의를 불태운 3기(1543-1546)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은 시기별로 돌레가 직접 관여한 출판물과 해당 출판물에 돌레가 관여한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sup>50)</sup>

돌레의 출판 활동을 조망해보면, 그가 출판한 책 중 프랑스어 서적의 수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돌레의 출판물 중 라틴어 저작과 프랑스어 저작의 발간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주로 작가와 편집자로 활동했던 1기 시절, 돌레는 휴머니스트 교육을 받은 학자답게 대부분의 책을 라틴어로 저술했고 라틴어 서적의 편집과 교정을 담당했다. 그러나 출판업자로서의 경력을 만개한 2기, 그중에서도 1540년 이후 돌레는 프랑스어 저작을 집중적으로 출판했으며, 이야말로 돌레의 출판사가 지닌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힌다.<sup>51)</sup>

48) Gérard Morisse, “Dolet et son entreprise d’édition”, Michèle Clement ed., *Etienne Dolet: 1509-2009*, Droz, 2012, pp. 381~401.

49) 1538년 특허장을 취득한 뒤 돌레가 가장 먼저 출판한 책은 프랑스 시인 클레망마로의 작품집이었다. 1기와 2기의 구분은 돌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사 명을 포기한 Clément Marot, *Les Oeuvres de Clement Marot*, Lyon: au logis de Monsieur Dolet, 1538을 기준으로 삼았다.

50) 돌레는 1기 시기동안에는 저술/번역/편집에 종사하다가 1538년을 기점으로 출판에 종사할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돌레가 본격적으로 인쇄공방을 시작해 자신의 이름이 붙은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하기 시작한 시기는 1540년부터이다. 1540년부터 돌레는 자신이 저술하거나 편집한 책은 물론 자신이 저술/번역/출판하지 않은 책들도 본격적으로 출간하기 시작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4번 발행 항목에서는 돌레가 저술/번역/출판하지 않은 책들의 수를, 5번 출판 항목에서는 돌레의 출판사에서 발행된 모든 책의 수를 기재하도록 하겠다.

51) Gérard Morisse, “Dolet et son entreprise d’édition”, Michèle Clement ed., *Etienne Dolet: 1509-2009*, Droz, 2012, p. 400.

	1					2					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	2	5	4	6	2	6	15	24	45	11	4	1	126
	1	2	4	3	1		4	11	18	10	3			57
			1	1	5	2	2	4	6	35	8	4	1	69

. SO !

그렇다면 돌레가 출판한 프랑스어 서적은 주로 어떤 분야의 책이었는데가? 프랑스어로 저술된 68권의 책들은 가벼운 소설부터 심각한 논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지만, 크게 보면 인문학 관련 서적, 의학서, 그리고 종교서 등 세 분야로 구분된다.

1	1534	0					
	1535	0					
	1536	1	1				
	1537	1	1				Dolet, <i>Sommaire dt recueil des faicts et gestes du roy Francoys I</i> (Lyon: Gryphius, 1537)
	1538	5	4	1			Baldassare Castiglione, <i>Le courtisan</i> (Francois Juste, 1538) Dolet (ed.), <i>Le guydon des praticiens</i> (Lyon, chez Scipion de Gabiano et freres, 1538)
2	1538	2	2				Clement Marot, <i>Les oeuvres de Clement Marot</i> (Lyon: au logis de Monsieur Dolet, 1538)
	1539	2	1	1			Claude Galien, <i>Le troisisme livre de la Therapeutique</i> (Lyon: chez Guillaume de Guelques, 1538).
	1540	4	3	1			Dolet, <i>Les gestes de Francoys de Valois roy de France</i> (Lyon:chez Dolet, 1540) Dolet, <i>La maniere de bien traduire d'une langue en autre</i> (Lyon, chez Dolet, 1540)
	1541	6	3	3			

	1542	35	18	5	9	3	<i>Brief discours de la Republique francoyse desirant la lecture des livres de la Sainte Escripiture luy estre loisible en sa langue vulgaire</i> (Lyon, chez Dolet, 1542) Erasme, <i>Le chevalier chrestien</i> (Lyon, chez Dolet, 1542) Francois Rablais, <i>Pantagruel, roy des Diosidesm resttye a sib naturel</i> (Lyon, chez Dolet, 1542)
3	1543	8	8				
	1544	4	2		1	1	
	1545	1	1				
		69	44	11	10	4	

. %0

둘레의 출판작업은 16세기 리옹 출판업의 변화과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행보라 할 수 있다. 초반 리옹의 출판물들은 리옹 정기시에서 소개되어 이탈리아, 스위스, 사부아, 에스파냐까지 수출되곤 했다. 또한 리옹은 또 다른 출판의 중심지 파리와 비교하여 비교적 세속적인 분야를 다루는 출판물들이 많았다. 국가의 수도이자 대도시인 파리의 인쇄업은 당시의 신흥 학문인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수입하고 전파하는 도구로 출발하여 이후 교회의 예배나 의식용 도서를 생산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 대학도 고등법원도 없는 리옹의 경우 인쇄업은 법학서나 의학서, 그리고 상인들을 위한 셈법을 다루는 서적 등 비교적 세속적인 분야에 강점을 보였기 때문이다.<sup>52)</sup> 종합하자면, 16세기 전반기까지 리옹 출판계의 번영은 프랑스 남동부와 지중해 지방에 걸쳐 부상하고 있던 다양한 엘리트 계층을 겨냥한 국제적 상품생산이라는 배경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sup>53)</sup>

52) 미야시타 시로 저, 오정환 역, 『책의 도시 리옹』, 101~120쪽.

53) Natalie Zemon Davis, “Le monde de l'imprimerie humaniste : Lyon”, ed. Henriean Martin et Roger Chartier, *Histoire de l'édition Française*, vol. 1 : *Le Livre conquérant, du Moyen Âge au milieu du dix-septième siècle*, Promodis, 1993, pp. 423~444.

그런데 돌레의 출판물은 이와는 상당히 다른 독자층을 겨냥하고 있었다. 돌레가 특히 프랑스어 서적의 출판에 열을 올렸던 1542년의 경우를 보자. 당시 돌레는 45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이중 35권이 프랑스어 서적이었고, 그중 12권은 종교 관련 서적이었다. 이 12권 중 9권은 성서 중 시편이나 바울서신의 불어판 번역이고, 나머지 3권은 에라스무스의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즘을 프랑스어로 소개한 저서이다. 즉 돌레는 당시 종교 개혁이 확산됨에 따라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점차 고조되었을 종교적 호기심에 대응할 만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출간했던 것이다. 그리고 돌레의 경우처럼, 16세기 후반부로 갈수록 리옹에서 프랑스어 서적의 출판은 날로 증가했으며, 종교개혁의 영향도 매우 뚜렷하게 관측된다.<sup>54)</sup> 돌레의 출판작업을 통해, 1540년대 리옹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식 엘리트층을 겨냥한 새로운 시장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돌레의 저작과 출판사업에서 관찰되는 프랑스 내셔널리즘은 상당히 유망한 ‘상품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돌레의 프랑스어 출판물이 지닌 ‘상품가치’가 확인되는 또 다른 분야로 돌레가 꾸준히 펴냈던 프랑스어 의학서들을 들 수 있다. 돌레는 1538년 처음 출판을 시작할 때부터 1542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11권의 의학서를 출간했는데, 이는 대부분 로마시대 활동했던 그리스 의학자 갈레노스(Claudios Galenos, 129-200)의 저작을 불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그리스어로 집필된 갈레노스의 의학서는 1530년대 플랑드르의 철학자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 1514-1564)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되었고, 1541년 시작하여 1625년에 이르기까지 14권으로 편집된 갈레노스 전집이 베네치아에서 출간된 바 있다. 당시 의학계에서 갈레노스의 이론은 치열한 찬반논쟁의 대상이었고, 그의 진정한 주장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그리스어로 된 원전을

54) Yves Krumenacker, “Le livre religieux à Lyon au seizième siècle (1517-1561)”, *Bulletin de liaison de l'Association des bibliothèques chrétiennes de France* 35, 2007, pp. 20~31.

다시 탐구하는 열풍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돌레가 갈레노스의 저작을 라틴어도 아닌 프랑스로 번역하여 6년에 걸쳐 11종이나 출간했다는 점은 주목을 끈다. 리옹에는 큰 규모의 시립병원이 있었고, 따라서 의학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는 환경이었으므로, 돌레는 프랑스로 번역한 갈레노스의 저작은 높은 상품성을 지닐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sup>55)</sup>

이렇듯 돌레의 프랑스어 서적 출판 작업은 번역을 통해 프랑스어의 수준을 함양하고 동시대 프랑스의 외교적 선택을 정당화하는 도구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프랑스어 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프랑스 내셔널리즘이 나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볼 수 있다.

## V. 결론

지금까지 휴머니즘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보급과 함께 16세기 프랑스에서 확산된 반 이탈리아 정서가 프랑스적 가치에 대한 옹호와 지지로 확산되는 과정을 학문적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양자가 하나로 모이는 교차점에 해당하는 리옹의 휴머니스트 인쇄업자 돌레를 통해 반 이탈리아-친 프랑스 정서가 어떤 방식으로 돌레의 출판업 속에 반영되었는지 추적해보았다.

프랑스에 유입된 이탈리아 휴머니즘은 초기에는 동경의 대상이었으나 프랑스 휴머니스트들은 점차 고전과 동시대 이탈리아인들의 저술에서 보이는 로마에 대한 자부심과 골족에 대한 폄하를 발견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휴머니스트들은 이탈리아보다 프랑스 문화가

55) Valérie Worth-Stylianou, “Etienne Dolet et l’édition médicale”, Michèle Clement éd., *Etienne Dolet: 1509-2009*, Droz, 2012, pp. 361~379.

고전의 본질을 발견하기에 적절하다고 옹호하거나, 동시대 이탈리아인들의 사치와 타락, 문화적 방만함을 공격하며 그들은 로마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 이탈리아 정서는 프랑스 휴머니스트들에게 고전과 휴머니즘 방법론을 상대화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능케 했다. 따라서 프랑스 휴머니스트들은 고전을 탐구하면서 발견한 프랑스의 역사와 전통이 로마의 그것보다 오히려 더 우월할 수도 있으며, 프랑스어가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품격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도 했다.

프랑스 휴머니스트들 사이에서 보이는 반 이탈리아 정서는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이탈리아인들의 상업과 돈에 대한 집착이나 사치를 비난하는 경제적 측면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이탈리아 상인과 자본이 집중적으로 정착했던 리옹의 현실 속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관측된다. 16세기 국경도시였던 리옹은 15세기 정기시가 설치된 이후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사부아, 스위스, 에스파냐를 잇는 국제적 물류 유통 중심지로 떠올랐다. 리옹을 새로운 무역중심지로 키운 배경에는 이탈리아 상인들의 역할이 컸고, 리옹이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던 1540년대까지 이탈리아 상인들은 그들의 배타적 생활양식에도 불구하고 리옹에서 환영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1540년대 들어 프랑스 상인들의 입지가 커지고, 그들이 이탈리아 상인들과 경쟁하면서 리옹에서는 반 이탈리아 정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더불어 프랑스 왕실이 리옹을 ‘왕실의 금고’로 사용하면서 경제적 특권에 제약이 심해지고, 정계와 연결된 이탈리아 상인들이 조세징수업자로 등장하면서 그들은 프랑스의 국익을 좀먹는 부정적인 존재로 경원시되기에 이른다.

휴머니스트이자 인쇄업자였던 에티엔 돌레의 저술과 출판 사업은 16세기 프랑스에서 발현된 반 이탈리아 정서의 지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돌레는 ‘르네상스의 순교자’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사상의 자유를 위해 희생당한 존재로 해

석되어 왔으나, 필자는 돌레의 저술과 출판작업을 통해 리옹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던 반외세-친프랑스 정서를 추적해보고자 시도했다. 돌레가 출판한 126권의 책 중 돌레 자신의 저술들은 프랑스어의 위상을 재정립하거나 프랑스 왕실의 정치적 선택을 옹호하는 프랑스 내셔널리즘의 초기적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나아가 돌레의 출판물 중 상당수가 프랑스어 서적이었다는 사실은 리옹의 반 이탈리아 정서와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단순히 의식적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형태의 경제적 수요를 창출할 만큼 확고한 인적 동력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6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확산된 반 이탈리아 정서에 대해 분석하면서, 필자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공포, 즉 ‘제노포비아’란 현대에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름의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16세기 프랑스는 중세 봉건왕국의 조건을 극복하고 파리를 중심으로 한 왕권을 통해 모든 프랑스인을 왕국의 신민으로 편입하는 주권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이 진행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프랑스인’이며 어디까지가 ‘프랑스 영토’인가 하는 구분선을 긋는 작업은 항상 모호한 지점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확실히 선을 그어 내쳐버릴 타자 집단이다. 16세기 프랑스에서 이러한 타자로 떠오른 것은 프랑스 남부를 중심으로 만만치 않은 세력을 형성했던 이탈리아인들이었고, 그들에 대한 배제가 지적, 경제적 차원으로 진행되면서 프랑스는 ‘무엇이 프랑스인가’ ‘누가 프랑스인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탈리아 이민자의 타자화를 통해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추후 종교내전이 벌어지는 16세기 말이 되면 정치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한층 더 공고해지기에 이른다. 지면과 시간의 한계 속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16세기 프랑스 반 이탈리아 정서의 정치적 측면은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현대 사회에서 제노포비아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세계화의 확산과 국제금융자본의 등장으로 16세기 리옹의 이탈리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고 전 유럽 또는 전 세계를 터전으로 활동하는 집단이 등장했으며, 이들의 요구 아래 각국은 규제 수위를 낮추고 노동력과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장려하는 추세가 확산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16세기 리옹의 프랑스 상인들의 박탈감에 공감할 만한 집단이 우리 시대에도 생겨났고, 그 결과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반감이 형성되고 있음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대의 제노포비아는 국가의 경계를 흐려지게 만든 근본적인 경제적 변화를 겨냥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 내 소수자 집단인 이민자들을 상대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21세기의 제노포비아는 16세기의 제노포비아보다 더 근거 없는 허상을 매개로 생성, 변주,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노포비아 현상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망하는 작업을 통해, 현대의 제노포비아가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고 성찰해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피력해본다.

## • 참고문헌

### <자료>

Budé, Guillaume, *La Philologie, texte original*, trad. par Maurice Lebel, Éd. de l'Université de Sherbrooke, 1989.

Dolet, Etienne, *La manière de bien traduire d'une langue en autre, D'aduantage de la punctuation de la langue Francoyse, plus des accents d'ycelle*, Lyon: Chez Dolet, 1540.

Dolet, Etienne, *Les gestes de François de Valois, roi de France*, Lyon: Chez Dolet, 1540, 1543.

Estienne, Henri, *Discours merveilleux de la vie, actions et deportments de Catherine de Medici, Royne-mere*, éd. Nicole Cazauran, Droz, 1995.

Gentillet, Innocent, *Discours sur les moyens de bien gouverner et maintenir en bonne pais au royaume ou autre principaute contre Nicole Machiavel Florentine (1576)*; Rathé, Edward ed., *Innocent Gentillet. Anti-Machiavel. Édition de 1576, avec commentaires et notes*, Librairie Droz, 1968.

Hotoman, Francis, *Franco-Gallia Or, An Account of the Ancient Free State of France, and Most Other Parts of Europe, Before the Loss of Their Liberties, written originally in Latin In the Year 1574 and Translated into English by the Author of the Account of Denmark, 2nd edition, trad. by Robert Molesworth*, London, 1711.

### <연구논저>

김세균 외 공저, 『유럽의 제노포비아 : 세계화시대의 인종갈등』, 문화과학사, 2006.

김은년, 「발자크의 음악론」, 『比較文學』 33, 2004, 59~88.

김중현, 「돌레의 번역론과 프랑스어의 함양」, 『프랑스 예술문화연구』 39,

2012, 417~442.

김현숙·김희재 공저, 『이민의 사회학』, 박영사, 2014.

박단, 『프랑스 공화국과 이방인들』, 서강대출판부, 2013.

박효근, 「헬레니즘에서 크리스티아니즘으로: 기욤 뷔데와 그의 시대」, 『서양중세사연구』 36, 2015, 207~237.

윤광흠, 「L'ITALIANISME DANS LA LANGUE FRANCAISE AU XVIe SIECLE」, 『語文 叢』 17, 1998, 149~171.

홍기원, 「최선의 국가형태 -프랑스와 오트만(1524-1590)의 혼합정체론의 신학적 기초」, 『법철학연구』 11-1, 2008, 1~38.

미야시타 시로 저, 오정환 역, 『책의 도시 리옹』, 한길사, 2004.

페르낭 부르델 저,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I-1: 세계의 시간上』, 까치, 1997.

Alary, Jacques, *L'imprimerie au seizième siècle: Etienne Dolet et ses luttes avec la Sorbonne*, Slatkine Reprints, 2013.

Amnesty International, *Choice and Prejudice: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in Europe*, London:Amnesty International, 2012.

Astier, Sophie, “Les gestes de François de Valois, roi de France”, Michèle Clement éd., *Etienne Dolet: 1509-2009*, Droz, 2012.

Balsamo, Jean, *Les Rencontre des Muses: Italianisme et anti-italianisme dans les Lettres Françaises de la fin du XVI siècle*, Edition Slatkine, 1992.

Bocher, Jaqueline, *Présence Italienne à Lyon à la Renaissance*, Lyon: LUGD, 2000.

Christie, R. C., *Etienne Dolet, the Martyr of the Renaissance*, Macmillan and co., 1899, Forgotten Books, 2015.

Clement, Michèle, ed., *Etienne Dolet: 1509-2009*, Droz, 2012.

- D'Andrea, Antonio,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text of Innocent Gentillet's Anti-Machiavel", *Renaissance Quarterly* 23-4, 1970.
- Davis, Natalie Zemon, "Le monde de l'imprimerie humaniste : Lyon", éd. Henri-Jean Martin et Roger Chartier, *Histoire de l'édition Française: Le Livre conquérant, du Moyen Âge au milieu du dix-septième siècle*, vol. 1, Promodis, 1993.
- Gascon, Richad, *Grand commerce et vie urbaine au XVIe siècle: Lyon et ses marchands*, 2 vols, Mouton, 1971.
- Heller, Henry, *Anti Italianism in Sixteenth-Century France*, Univ. of Toronto Press, 2003.
- Krumenacker, Yves, "Le livre religieux à Lyon au seizième siècle (1517-561)", *Bulletin de liaison de l'Association des bibliothèques chrétiennes de France* 135, 2007.
- La Garanderie, M.M., *Christianisme et lettres profanes: Essai sur l'humanisme français(1515-1535) et sur la pensée de G.Budé*, 2 éd., Honoré Champion, 1995.
- Morisse, Gérard, "Dolet et son entreprise d'édition", Michèle Clement éd., *Etienne Dolet: 1509-2009*, Droz, 2012.
- Morisse, Gérard, "Compléments à la bibliographie d'Etienne Dolet: ouvrages parus à Lyon de son vivant", Michèle Clement éd., *Etienne Dolet: 1509-2009*, Droz, 2012.
- Nolhoc, Pierre de, "Le roi Henri III et l'influence italienne en France", *Giornale storico della Letteratura italiana* XVII, 1891.
- Picot, Emile, "Les Italiens en France au XVIe siecle", *Bulletin italien* I, 1901.
- Simone, Franco, "Une entreprise oubliée des humanistes français. De la prise de conscience historique du renouveau culturel à la naissance de la première histoire littéraire", *Humanism in France in the end of the*

*Middle Ages and in the early Renaissanc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70.

Rathé, C. Edward, “Innocent Gentillet and the First ‘ANTI-MACCHIAVEL’”, *Bibliothèque d’Humanisme et Renaissance* 27-1, 1965.

Sozzi, Lionello, *Rome n’est plus Rome. La polémique antiitalienne et autres essais sur la Renaissance suivis de “La dignité de l’homme”*, Classiques Garnier, 2002.

\_\_\_\_\_, “La polémique anti-italienne en France au XVI siècle”, *Atti della accademia scienze di Torino* 106, 1972.

Thireau, Jean-Louis, *Charles du Moulin: 1500-1566*, Droz, 1980.

Worth-Stylianou, Valérie, “Etienne Dolet et l’édition médicale”, Michèle Clement éd., *Etienne Dolet: 1509-2009*, Droz, 2012.

## Xenophobia in the Sixteenth Century France

— The Case of Étienne Dolet and His Publishing  
Business in Lyon —

Pahk, Hyogeun\*

Xenophobia,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exclusion and hatred of foreigners, has been regarded as a phenomenon that was mainly expressed in the 20th century. However, the otherizing process to consolidate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has a long historical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xenophobia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by analyzing the anti-Italian sentiment in France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anti-Italian sentiment in France was first germinated among the intellectual circles and then spread to the socioeconomic dimension. The humanist Étienne Dolet (1509-1546), also an editor-cum-printer in Lyon, is a proper example from whose activities we can comprehensively examine the two dimensions of French xenophobia in the sixteenth century. Through the analysis of his writings and publications, it was considered that xenophobia functioned as an incentive for the early formation of nationalism in France in the sixteenth century.

=Wk i adé, JWabZaT[Sl @Sf[a` S[e\_ l 8dWUZ Zg\_ S` [e\_ l >ka` l  
Û f[W` W6aW

---

\* Daeyang Humanities College, Sejong University

7Z? S[ ^ `gecgS\_2`ShWLa\_

, S' # "& ") ! , S' # "& \$) ! , S' # "' "\*